

“내가 만든 노래 직접 부르니 짜릿 노래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

음악이 좋아 둘친 아줌마 밴드 ‘유행가’

억척스럽고, 주책스러우며, 수다쟁이에 낭만이 없다. 우리가 흔히 아줌마에 대해 갖는 편견들이다. 이런 아줌마들의 편견에 당당히 도전장 내밀며 “나는 아줌마다”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아줌마 밴드 ‘유행가’(단장 강수창).

‘유별난 아줌마들의 행복한 시와 노래’라는 뜻을 가진 유행가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아줌마 밴드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30대부터 이제는 손자를 볼 나이인 60대까지 음악이 라고 밤드, 뽕짝 밖에 모여든 30여명의 아줌

마들이 기타코드를 짚어보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드럼을 두드렸다. 난생처음 작사, 작곡도 배워 자작곡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밴드 프로젝트가 끝났다. 하지만 아쉽기만 했다.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 중독됐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10명이 모여 밴드를 결성해 ‘유행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강수창(41) 단장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은 있었는데, 모두 밴드는 처음이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교감하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때 그 느낌은 표현하기 힘



들었다”며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시작한 것이다”고 말했다.

유행가는 주로 자작곡을 연주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연습실에 모여 그동안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고 조언을 구한다. ‘아내 노릇, 엄마노릇 힘드네요’, ‘이 비가 그치길 기다려’, ‘아서라 친구야’ 등 그동안 작곡한 노래만도 모두 10곡이 넘는다. 모두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옮긴 것이다. 아줌마가 세상과 소통하는 일종의 해방구인 셈이다.

유행가는 보컬이 따로 없다. 모두가 보컬이다.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부르며 노래에 담고 싶었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해낸다. 노래 부를 때만큼은 주부, 아줌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60대 만안이도 노래하고 연주할 때만큼은 10~20대 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작은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겠습니다.” /김경인기자 kki@

강동완 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 취임



강동완 조선대(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가 최근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제3대 회장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현재 대한치과생체공학연구회 회장, G10 생명문화포럼 상임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인사

◆순천시

◇4급 승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4급 전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5급 승진 ▲별관면장 직무대리 임영모 ▲해룡면장 “조중기 ▲황진면장” 장영권 ▲덕연동장 “체승연 ▲풍덕동장” 문운기 ▲월등면장 “양선길 ▲송광면장” 심순섭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행수”

◇5급 전보 ▲감사과장 조현수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세무과장 유길주 ▲홍보전산과장 강재식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교통과장 흥용복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동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립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희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순천민운영과장 조병철 ▲나언읍성장 강공배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승주읍장 정하윤 ▲외서면장 박종수 ▲상사면장 정종성 ▲서면장 황택연 ▲조곡동장 안병현 ▲도사동장 임영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매곡동장 정성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항동장 임종필 ▲장천동장 박길영 ▲농촌지원과장 김재천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내방

▲정병석(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씨 ▲오세균(행정국장)씨



인순이, 어릴적 멘토 ‘미군 오빠’와 38년만에 재회

소프라노 정수경·방송인 이파니

여수 세계 롤리대회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와 방송인 이파니가 여수에서 열릴 세계 롤리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알리는데 앞장선다.

대한롤리경기연맹은 19일 여수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파니와 정수경 교수를 ‘2011 여수세

계 롤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유준상, 김충석) 2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



정수경 이파니

지 여수 진남인라인롤리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6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 한다.

남경주가 전하는 ‘뮤지컬과 소통하기’

21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뮤지컬과 쉽게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강연

을 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상길) ‘2011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의 다섯 번째 강사로 초청된 남경주는 뮤지컬에서 관객을 진정 야기한다.

/김경인기자 kki@

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키리나회원=매주 목요일 주 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사)비트남침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침전 전우·회원=서구지회 018-645-2631, 남구지회 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페더글라이더, 헬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활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구

시·시계·베개·주차증·방식·액자·

지갑·핸드폰等情况。

▲광주 물레 클럽 수영 동호회원=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시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시단법인 효사랑봉사단=평

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어교

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

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

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

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

서예·한글·한국어·한국사·한국

역사·한국문학·한국철학·한국

미술·한국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

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

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

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

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한국